19년 만에 첫 삽 뜬다… '인천 내항' 해양문화공간 탈바꿈

실시계획 승인으로 착공 절차 마무리
43만7000㎡ 부지에 6370억 투입
공원·문화·관광·상업 복합공간 조성
이르면 4분기 착공 2029년 완공
지방정부 참여 전국 첫 항만재개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조감도. /인천항만공사

인천의 한 노후 항만이 도심 인근의 해양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그것이다. 이는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부두를 새 해양도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무려 19년 만에 착공 허가가 났다. 그간 보안구역으로 묶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왔다.

인천항만공사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지난 20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사 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장기간 논의·계획 단계에 머물렀던 내항 재개발사업은 본격적인 사업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착공을 위한 최종 관문을 넘은 것.

이 사업은 19년 전 시민 청원에서 비롯됐으나 경과는 지지부진했다. 이후 최근 약 2년 만에 타당성조사와 정부 실시협약 체결, 중앙투자심사 통과, 사업계획 확정 등의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됐다.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항만 재개발사업이다. 우여곡절 끝에 새 해양·문화공간으로의 변모를 위한 첫 삽을 드디어 눈앞에 뒀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인천 중구 북성동과 항동 일대 43만7000㎡(13만 2000평)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 6370억 원을 투입해 노후 항만공간을 공원·녹지와 문화·관광·상업 기능이 어우러진 새로운 해양도시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르면 올해 4분기 중 착공에 공사 기간은 36개월 내외로 예상된다. 2029년 완공이 목표다. 사업시행자는 '인천시 컨소시엄'으로, 인천광역시와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항만 보안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탓에 시민의 접근이 제한됐었다. 사업이 본격화하면 내항의 해안 공간이 단계적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항만과 원도심 사이의 물리적 경계를 허물어, 수변공간을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인천 원도심 재생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내항의 역사성 및 장소의 특성을 살리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수·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실시계획 승인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계획을 넘어 실제 공사 단계로 전환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내항이 시민에게 열린 공간이자 인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해양문화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시·인천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가 인천항 내항 1·8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사업시행자인 인천시 컨소시엄(인천광역시·인천항만공사·인천도시공사)이 제출한 계획안을 보완해 수립했다.

정부가 확정한 사업계획은 ▲사업 시행방식 ▲기반·공공시설 설치계획 ▲토지이용계획 ▲재원조달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합도심지구, 문화복합시설, 관광시설, 공원 등을 건립한다.

특히 인천항 개항의 역사를 간직하게 될 '문화복합 시설'의 경우,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합도심지구'는 지역의 안정적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한다. 공동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정주 기능을 갖추고 생활지원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남재헌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항만 재개발을 통해 인천항 내항 1·8부두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해양문화 관광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ys@metroseoul.co.kr metro

산업R&D 사업화·수출에 7050억 지원

산업부, 우수과제 기업 금융문턱 낮춰
기보 4050억·무보 3000억 보증
기업당 운전자금 최대 100억 한도

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성과의 실증·양산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총 7050억 원 규모의 대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산업통상부는 31일 R&D 과제 성과의 기술사업화 및 수출을 추진하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산업R&D 혁신기업 우대 패키지금융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R&D 과제를 우수 또는 완료 등급으로 수행하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R&D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업기술 R&D 전담은행인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총 470억 원의 보증 재원을 특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기보)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맞춤형 보증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선 기보는 향후 3년간 40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사업화 보증'을 공급한다. 기업 전체가 아닌 R&D 성과의 사업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자금을 보증하는 방식이다.

대상 기업은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0억 원(시설자금 포함 시 최대 100억 원)의 운전자금을 100% 보증비율과 감면된 보증요율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무보는 총 3000억 원 규모의 'R&D 혁신기업 수출입 보증'을 지원한다. 수출 준비 자금이나 원자재 수입자금에 대해 최대 100억 원 한도로 100% 보증과 보증료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이나 M.AX 얼라이언스 참여기업에는 최대 2.5배의 특별 한도가 부여된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시중은행, 정책보증기관, R&D 전문기관의 협업으로 마련된 7,05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가동됨에 따라 사업화 성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R&D 성과가 기술에만 머물지 않고 기업 매출과 수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 희망 기업은 R&D 기술금융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자격확인서를 발급받아 기보나 무보의 보증심사를 거친 후, 협약은행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전KPS, 30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5개 참가팀 모두 금·은·동상 수상
정비시간 단축·위험지수 개선 호평

전력설비 정비 전문공기업인 한전KPS가 산업통상부 주최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30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한전KPS는 지난 24일부터 닷새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제52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현장개선, 안전품질, 사무간접 등 3개 부문에 5개 팀이 참가해 모든 팀이 대통령상에 해당하는 금상 2개, 은상 2개, 동상 1개를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장개선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씨앗분임조는 '원자로건물 공기순환 냉각공정'을 개선, 정비시간을 53.27% 단축해 ▲인력운영 효율성 ▲원가절감 ▲정비환경개선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둬 심사에서 호평을 받았다.

안전품질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Perfect 분임조는 '화력발전 소내 전력설비 정비공정'을 개선하여 위험지수를 39.53% 감소시켜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등 PDCA(계획-실행-점검-환류) 관점의 개선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고품질·무결점 책임정비를 통해 발전설비의 안정과 안전을 책임지고, 고객 가치를 창출한 노력이 인정받아 매우 영광"이라며 "수상을 계기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속가능한 100년 기업으로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댐 주변 농특산물, 모바일 판로 확대

수자원공사, '로컬마켓' 상시 판로 구축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댐 주변 지역 농가의 판로를 일회성 대면 행사에서 모바일 기반의 상시 직거래 체계로 대폭 전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8월 28일~30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귀농·농촌 종합 박람회 '2026 에이팜쇼(A FARM SHOW)'에 참가해 댐 주변지역 농특산물 전용 직거래 창구인 '로컬마켓'을 공식 선보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본사와 유역본부 단위로 정례 대면 장터인 '이음장날'을 운영하며 지역 농가의 판로를 지원해 온 수자원공사는 이번 로컬마켓 개설을 통해 상시적인 온라인 판로를 확보했다. 댐 주변 상생 전용 앱인 '로컬 바이브'를 통해 오는 9월부터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전국 소비자와 직접 연결, 농가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자립 기반 마련을 본격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댐 수변공간과 지역 고유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인 '댐 로컬브랜딩'도 본격 추진된다. 올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군(용담댐) 보물찾기 축제와 경북 안동시(안동댐) 마라톤 페스티벌 등 특화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특히 1호 선도사업인 '트레저헌터 in 진안'은 지난 29일 출정식을 갖고 오는 9월 19일까지 3주간의 여정에 돌입했다. 전용 앱 '로컬 바이브'를 활용한 미션형 보물찾기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28일~30일까지 열린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6 에이팜쇼(A FARM SHOW)'에 참석해 댐주변지역 특산품 판매를 위한 '로컬마켓 Zone'을 살펴보고 있다. /수자원공사

/세종=한용수 기자

농촌 외국인력, 작물 따라 체류자격 갈렸다

농협, 지역별 인력수급 빅데이터 분석

각 농촌 지역 및 재배작물의 특성에 맞춘 외국인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근로자 체류자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다는 제언이다.

농협중앙회가 농업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등록외국인 체류자격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농협 빅데이터플랫폼의 '농작물 출하량 데이터'와 국가통계포털의 '등록외국인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했다. 그 결과 지역별 주력 작물의 수확 주기와 외국인 인력의 체류자격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시기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작물 재배 지역에는 단기 체류가 가능한 '계절근로자(E-8)'가 주로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중 지속적인 관리와 작업이 필요한 지역에는 '비전문취업자(E-9)'가 활용됐다.

실제로 ▲상주(포도) ▲진주(딸기) ▲보성(감자) 등 수확기에 노동력이 집중되는 지역은 계절근로 인력 비중이 컸다. 이에 반해, 천안(배) 등 연중 상시적인 재배·관리가 필요한 작물의 출하량이 많은 지역은 비전문취업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또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주요 6개국 출신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분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